

錦山人蔘栽培의 歷史的 考察

金 順 基

三南化學研究所長

林園十六誌, 世宗地理誌(正宗時代), 東國輿誌勝覽(1454-1544, 成宗, 中宗 時代) 등 李朝時代의 地理史 書에는 錦山에 人蔘이 產出된다는 記錄이 없고 다만 珍山만이 全國의 人蔘產地 101 個所 中的 하나로 記錄되어 있을 뿐이다.

1923年 5月 10日 錦山 人蔘 組合이 創設되어 錦山 曲蔘이라는 商品을 市販하기 始作하였는데 이때에는 벌써 錦山에서 人蔘栽培가 盛行되어 耕作者의 共同利益을 위한 團體가 自然的으로 發生하게 되었으므로 이 事實에 根據를 둔다면 錦山 人蔘 栽培의 歷史를 70年~100年으로 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100年前 까지만 해도 歷史的 事實이 記錄으로 轉해지는 일은 極히 드문 일이어서 錦山 人蔘 栽培의 歷史를 記錄上에서 찾고자 하는 것은 큰 意味가 없다.

人蔘의 歷史는 至極히 오래이고 그에 對한 記述은 中國의 古文書에서 널리 찾아볼 수 있으나 그러한 文書를 通하여 考古學的 研究方法으로 錦山 人蔘의 起源 또는 栽培의 歷史를 推理하고 解明할 수밖에 없다.

日本人蔘史(1968년, 日本 人蔘農業協同組合發行)에서는 人蔘栽培의 歷史에 대해 다음과 같이 記述하고 있다. 「人蔘의 人工栽培는 朝鮮의 경우 18世紀 末 즉 日本의 德川幕付 時代의 明和, 安永 年間(1774年~1770年)에 始作되었으며 中國에서는 그보다 100년 정도 늦은 1868年 경우, 日本에서는 朝鮮보다 50년 빠른 18世紀 末 農業化가 始作되었다.」라는 것이다.

이러한 主張은 今村 鞆의 大著 「朝鮮總督付 人蔘史」의 記述을 引用한 것이므로 터무니없는 말이지는 않지만 그것을 반박할 만한 資料가 우리에게 없다는 現實도 認定할 수밖에 없다. 本人의 「錦山人蔘栽培의 歷史的考察」이는 演題가 「日本人蔘史」 또는 今村鞆의 「人蔘史」의 主張을 반박하는 하나의 努力이라 理解해 주기 바란다.

여기에서 中國 陶弘景(452~536年: 百濟 武寧王 時代)이 編著했다고 전해는 「神農本草經」 그리고 中國 明나라의 李時珍(1518年~1593年)이 在來의 本草書를 集約整理하여 編著한 「本草綱目」의 人蔘에 관한 記錄에서 1500年前 陶弘景이 實見한 百濟蔘, 高麗蔘은 規格화된 栽培人蔘이었고 百濟蔘은 錦山에서 人工栽培한 人蔘이라는 것을 實證的으로 說明할 수 있다고 본다.

「神農本草經」에서 「吳普 曰 人蔘-----三月 九月 採根 根有 頭足 手面目 如人」 「名醫 曰-----人蔘 二月, 四月, 八月 上旬 採根 竹刀 亂暴乾 無令 見風」이라 하였고 「本草綱目」에서의 「宏景曰---俗乃重 百濟者 形細而堅白, 氣味薄於上黨者, 次用 高麗者 高麗 卽時 遼東, 形大而 虛軟 不及 百濟者」라는 것과 「嘉謨曰---百濟蔘 白堅且圓」이라는 句節에 注目할 必要가 있다. 以上의 記述들은 人蔘의 採取時期와 乾燥加工 方法 또한 百濟蔘과 高麗蔘, 上黨蔘 등의 品質과 特徵을 比較 說明한 것이다. 自然 人蔘은 生成한 土質, 位置, 年數 等 條件에 따라 外樣이 決定되므로 產地에 따라 特徵이 同一할 수는 없다.

또한 稀貴한 自然生 人蔘은 먼저 發見한 자가 임자가 되는 것인데 二月, 四月, 八月 등 時期를 限定시켜 採取할 수는 없는 일이다. 陶弘景이 發見한 百濟蔘과 高麗蔘은 각기 다른 外形과 特徵으로 區分 識別할 수 있는 規格화된 人蔘이었으니 이는 分明히 一定한 生育條件아래 人工栽培된 人蔘이라 할 수 있다.

오늘의 錦山 曲蔘은 漢文으로 簡潔하게 說明하자면 「形細而 堅白且圓」이 되는데 本草綱目에서의 「百濟蔘 形細而 堅白 且圓」이라는 글에서 錦山蔘과 百濟蔘이 關聯性이 있다고 보는 것이 當然한 結論이다.

韓國에 있어서 開城產의 直蔘, 豊基產의 半曲蔘, 錦山의 曲蔘이라는 우리나라 人蔘의 세가지 類型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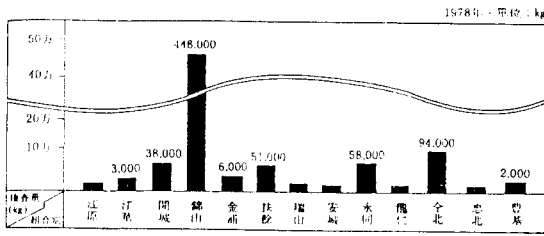


Fig. 1. 各 組合別 白蔘類 檢査實績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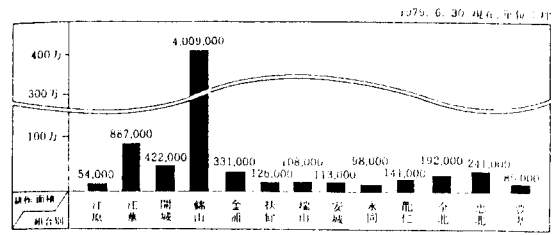


Fig. 3. 各 組合別 1個郡黨 耕作面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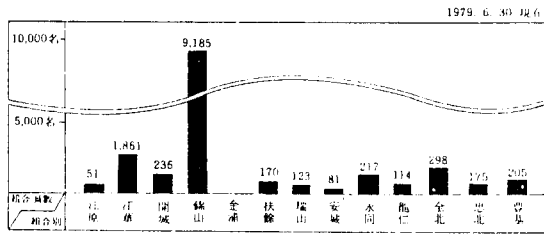


Fig. 2. 各 組合別 1個郡黨 組合員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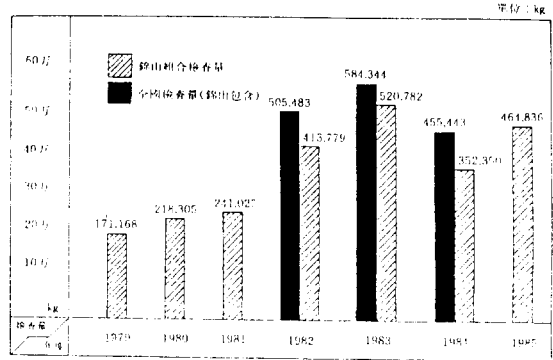


Fig. 4. 錦山人蔘耕作組合白蔘(本蔘類)檢査量.

各其 高麗, 新羅, 百濟에서 緣由된다고 볼 수 있다면 百濟蔘은 曲蔘이었고 오늘의 錦山曲蔘과의 關聯性은 否認할 수도 없고 구태여 否認할 必要도 없는 일이다. 그렇지만 百濟蔘에 관한 記錄이 中國 明나라 李時珍 本草綱目 以後 斷絶되어 있고 우리나라 東國輿地勝覽 等の 李朝時代의 地理書에 言及이 없는 事實에 對해서는 다음과 같은 解釋이 可能하다고 본다.

1) 征服者들의 百濟 抹殺 政策에 따른 百濟人蔘의 傳統繼承 不可能

2) 李朝時代의 紅蔘 重點 政策

3) 錦山에 있어서의 組織的이고 體系的인 人蔘 栽培 農業의 消滅

4) 形細한 人蔘에 對한 賤視 風潮

이렇게 해서 겨우 命脈만이 維持되어 나오다가, 開城直蔘에 맞서 1923년 曲蔘 形態의 特異한 모습으로 百濟蔘의 正體를 들어낸 것이다.

1910年 3月 10日 開城人蔘 組合이 設立되어 紅蔘 收納에서 除外된 人蔘을 剝皮 乾燥해서 直蔘 形態로 加工한 開城人蔘을 市販하였고, 1923年 5月 10日 錦山 人蔘 組合이 設立되어 錦山曲蔘을 檢査 包裝 販賣하였으 며 1956年에서 豐基 人蔘組合이 設立되어 半曲蔘 形態의 豐基 人蔘을 檢査 包裝 販賣한 바 있다.

1950年 6. 25사변 前에는 6年根 開城直蔘과 4~5年根 錦山 曲蔘으로 國內外 市場이 兩分되어 있었다.

그러나 6.25사변 이후에는 開城人蔘組合의 活動이 中斷되는 悲運을 맞게 되었으나 錦山 人蔘 組合의 生産, 檢査, 包裝事業은 繼續되어 開城 産地의 喪失에 따른 高麗人蔘의 空白期를 最大限으로 短縮시키는 重大한 役割을 담당하였으며 高麗人蔘의 命脈繼承과 蘇生에 至大한 공을 세운 바 있다. 錦山 人蔘의 全盛期인 1950年에서부터 1974年 사이에는 錦山人蔘組合 檢査人蔘이 國內外 人蔘 市場을 거의 獨占하고 있어 錦山 曲蔘은 韓國 人蔘의 代名詞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1972年 人蔘規制法이 制定되어 錦山 人蔘 組合은 獨自의인 檢査權 行使를 잃게 되고 錦山曲蔘의 商標使用과 松, 竹, 梅 等級 表示가 불가능해졌으며 組合의 管轄區域이 縮小되는 등 많은 變化를 가져오게 되었다.

1978年의 統計資料(韓國人蔘史)에 依하면 各 組合別 白蔘檢査 實績表(Fig. 1), 各組合別 一個郡黨 組合員數(Fig. 2), 各組合의 一個郡黨 耕作面積(Fig. 3), 등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錦山은 人蔘의 生産量, 檢査量, 耕作面積, 耕作人數에 있어 단연 他地域을 壓倒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錦山人蔘은 嚴然하게 存

在하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1923년 以來 50余年을 維持해 나오던 商標使用이 抹消되어 高麗人蔘이라는 商標로 統一되고 있는 形便에 있다. 또한 「韓國人蔘使」 등의 公式的인 記錄에서도 錦山曲蔘이라는 固有

名詞는 모습을 찾을 수 없으니 韓國人蔘界에 君臨하고 있는 錦山人蔘은 實體는 있어도 이름을 나타내지 않는 幻影으로 存在하고 있을 뿐이다.